

보도

경희대 신궁의 시작은 ‘멋있어 보여서’

국가대표 강채영 선수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계에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매년 치러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국가대표가 된 강채영(스포츠지도학 2015) 선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당당히 2관왕을 차지했다. 경희대와 대한민국을 당당히 빛낸 강채영 선수를 만나봤다.

강 선수가 처음 국가대표로 발탁된 해는 2015년이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를 대표해 나간 첫 세계대회인 ‘상하이 세계 양궁 월드컵’에서 강 선수는 양궁 리커브(양궁 경기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활의 위, 아래, 끝 부분이 반대 방향으로 구부려져 있는 활) 3관왕(여자 개인전, 여자 단체전, 혼성전)을 차지했다. 강 선수는 웃으며 “그 때는 멋모르고 그냥 활을 썼던 것 같아요”라고 했다.

세계 최정상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 우리나라 매년 국내 대회에서 정해진 점수를 넘은 120명 정도의 선수들 중 자체 경기를 통해 32명을 선발한다. 같은 방식으로 2차 선발전을 치러 8명이 ‘국가대표에 도전할 자격’을 얻는다. 이 8명이 기준 국가대표 8명과 3차 선발전을 치른다. 3차 선발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뽑힌 8명이 국가대표가 된다. 그나마도 그 사이에서 국가대표 1군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자체 경기를 통해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몇 차례의 난관을 거쳐서야 1년 동안 국가대표 ‘신궁’의 자격을 얻는 것이다.

2015년,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뽑히고 첫 세계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강 선수이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강 선수는 “2015년에 월드컵 이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며 “최대한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선발전에 떨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양궁을 그만 두고 싶기도 했고 활 쏘는 것도 너무 두려웠다”며 그 당시의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리우 올림픽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선수는 국가대표 최종 선발 단계에서 강 선수를 1점 차이로 제쳤다. “그 때는 힘



강채영 선수가 국제캠퍼스 양궁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 이후승 기자)

들었지만 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라는 강 선수는 “그걸 계기로 많이 성숙해지고, 경험을 얻어 어떻게 시련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도 배우게 됐다”고 했다. “시합 다니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성적도 점점 좋아지면서 이겨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한 강 선수의 양궁경력은 올해로 13년이다. 전학 간 초등학교에 양궁부가 있었고 교실에 감독님이 들어와 양궁 해 볼 사람을 묻는 질문에 손을 든 것이 계기였다. ‘그냥 활이 멋있어 보여서’였다. 강 선수는 “활을 쏘 때, ‘아! 10점이다’하는 느낌이 온다”며 “순간의 집중력을 최대로 모을 때의 기분에서 양궁의 매력을 느낀다”고 했다.

강 선수는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기도 하고 경희대 양궁 선수이기도 하다. 학기 중에는 수업을 듣고 수업이 없을 때는 훈련에 들어간다고 한다.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만 쏘다가 저녁 7시부터 8시 반까지 웨이트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양궁

은 감각이 위낙 중요하기 때문에 활 쏘는 시간이 많다”며 “방학 중의 일과가 학기 중보다는 지루하다”고 웃으며 답했다.

국가대표팀 소속의 강 선수는 선수촌에서 생활한다. “오전·오후 운동 후 저녁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시간에 쉴 때도 있고 부족하다 싶으면 개인 운동도 한다”며 “처음에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 국가대표라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구나 라고 느끼며 자랑스러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국가대표를 하다보면 부담감이 정말 크다”는 강 선수는 “지금까지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양궁을 계속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은 어느 것에도 비교하지 못하는 행복이라고 한다. 그는 “학교 대표로는 제가 우리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과 제가 수상을 꼭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국가대표를 하다 보니 국내대회에 대한 부담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강 선수는 누구보다 우리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제가 경희대라는 학교를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는 그는 “학교에서 너무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 대회에서 차용하는 가슴 보호대에 항상 학교 마크를 달고 나가는 모습에서 강 선수의 자부심이 읽혔다.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17 현대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여자 단체전, 혼성전)을 차지한 강 선수는 “상반기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는데 하반기에 성적이 잘 나왔다”며 “올 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했다.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는 좋은 점이 더 기억에 많이 남았다는 강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팀 막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표팀에서 배우는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 “경기 운영 측면에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운다”며 “(장)혜진 언니나 (기)보배 언니의 경기 운영, 경기에 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많이 질문하고 배우려고 한다”라고 했다. “혜진 언니가 이번 대회 대표팀의 맘언이었는데 단체전에서 선수들을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운동이 없을 때는 친구와 맷집을 탐방하거나 쇼핑을 즐겨 하고 특히 비누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강 선수의 모습에서 국가대표 양궁 선수이기 이전에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내년에 열리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 다음 목표라는 강 선수는 “항상 모든 대회에 임할 때 3관왕의 목표를 세우고 들어간다”며 “최종 목표는 그랜드슬램(4개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올 해 좋은 성적 거두었다고 풀어지지 않고 선배들 끌어갈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와 경희대를 빛내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명절 때도 선수촌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좋은 선수가 된 것도 감독님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희대 양궁부 최희라 감독에게 감사를 전했다. “선수촌 생활 때문에 긴 시간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멀리서도 항상 응원 많이 해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고맙다”며 동료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제가 비록 공부로 경희대를 알리지는 못 하지만 양궁 열심히 해서 우리학교를 빛내겠다”는 강 선수의 다음 퍼펙트골드를 응원한다.

2018학년도 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첨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 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10월 10일 ~ 2018년 1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 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i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제43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대한민국 미래를 보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2017.11.22(WED) 15:00



강연 | 이만열 교수 (경희대 국제대학)

일시 | 2017.11.22 (수) 오후 3시

장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내용 | 강연, 도서증정행사, 사인회

